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6.10.14

CONTENTS

< 요약 >

1. 맹사성상 제정의 의미와 가치
2. 맹사성상 제정시 고려사항
3. 제정 관련 행정사항
4. 결론 및 정책제언

맹사성상 제정 타당성 연구

성태규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tgsung@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맹사성상 제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역사적 관점과 현실적 관점에서의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맹사성상을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검토하는 것임

요 약

- 맹사성상의 제정의 타당성은 필요성과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함
- 고불 맹사성 선생의 청렴성을 후대에 기리고 본받기 위한 시상의 역사적 필요성은 분명함
- 한편 현 시대에서의 공무원의 청렴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인식, 행정적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과거에 비해 맹사성상 제정의 의의는 감소되었음
- 본 과제에서는 맹사성상이 제정된다면 행정적으로 바람직한 대상지역의 범위, 운영주체, 시상규모 등을 제안하였음

맹사성상 제정의 의미와 가치

01

1) 맹사성 인물사¹⁾

- 고불(古佛) 맹사성은 조선시대 청백리(淸白吏)의 대표적 인물로 존경받고 있음
- 고불(古佛) 맹사성은 1360년(공민왕 9년) 태어나 1438년(세종 20년) 서거하였음. 1386년(우왕 12년)에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춘추관검열(春秋館檢閱)로 관직을 시작하여, 조선이 건국된 뒤 태조 때 예조의랑(禮曹議郎)이 된 이래, 이조참판, 예조판서,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에 올랐고, 1435년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음.
- 1408년 사헌부대사헌이 되어 태종의 사위인 평안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을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잡아다가 고문하였음. 이 일로 태종의 큰 노여움을 사 처형될 뻔했으나, 영의정 성석린(成石璘)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였음. 그는 우의정 재임시에 태종실록(太宗實錄) 편찬 감관사(監館事)로서 감수하였으며, 태종실록의 편찬이 완료된 후 세종이 보려고 하였으나, 그는 “왕이 실록을 보고 고치면 반드시 후세에 이를 본받게 되어 사관(史官)이 두려워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반대하였음.
- 수차례에 걸쳐 고향에 계신 노부를 병간호하기 위해 사직을 원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소탈하고 조용하였고 엄하지 않은 사람됨을 지녔음. 벼슬이 낮은 손님이 방문하여도 공복(公服)을 입고 대문까지 나아가 맞았으며, 손님이 나갈 때에도 대문까지 나아가 공손히 마중하였음. 청백하여 개인적 욕심을 탐하지 않았으며, 늘 녹미(祿米 : 봉급으로 받을 쌀)를 식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www.naver.com; 검색일 : 2010.9.24)를 참조함.

량으로 하였음. 늘 소(牛)를 타고 출입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은 재상인 그를 알지 못하였음.

- 빈번하게 병치레를 한 세종(世宗)은 온양으로 내려와 온천욕을 자주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지역을 온양(溫陽)이라고 불렀음. 세종은 백성들과 함께 온천의 효과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백성들도 온천욕을 할 수 있기를 원하였음. 온양에 살았던 맹사성은 온천욕의 효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적극 찬성하여 조선의 온천 복지 정책에 일조하였음.²⁾
- 고불 맹사성선생의 품행을 통해 청백리상을 제정한다면 고불 선생의 청렴결백의 덕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

2) 청백리(清白吏)³⁾

- 청백리는 청렴하고 근면한 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청렴결백한 관리를 표창하던 제도임. 중국에서 실시하던 제도를 원용하여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제도화하였음. 우리나라의 청백리는 조선개국 초기부터 실시되었고, 중종대의 정비를 거쳐, 선조 대에 선발 절차 등이 규정되면서 제도로써 확립되었음.
- 청백리는 청백, 근검, 경효(敬孝), 후덕(厚德), 인의(仁義) 등을 항목으로 선발되었음. 조선시대에는 약 200여명의 내외의 청백리가 선발된 것으로 추측됨. 조선 전기시대에 선발된 청백리는 국가의 예우는 받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관리의 본보기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음. 이 시대의 청백리는 국록 이외에 국가나 개인에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고 청렴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여 귀감이 된 인물이었음.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사색당파 등 정쟁, 외척의 세도정치 등의 비리정치로 청백리가 선발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여, 청백리가 거의 선발되지 못했음.
- 고불 맹사성 선생은 조선시대 황희, 류관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청백리로 존경받았던 인물임.

2) 위키백과(www.naver.com; 검색일 : 2010.9.24).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www.naver.com; 검색일 : 2010.9.24)를 참조하였음.

1) 역사적 관점⁴⁾

- 맹사성상은 기본적으로 맹사성이 지닌 ‘청렴성’과 ‘근면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 분의 품행을 현재 사회에 널리 확산함을 목적으로 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역사적 질문은 맹사성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청백리인가의 문제임.
- 역사적 사실은 그 시대의 정치·권력구조와 후시대에 의해 ‘윤색’되어 평가됨. 조선시대에 약 200여명 내외의 청백리가 선발되었으나, 이 가운데 어느 분이 가장 훌륭한 청백리인가 하는 문제는 ‘윤색’된 평가에 의해 판단될 수 있음. 맹사성이 세종대의 관리이기 때문에 성종 등 다른 시대의 청백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도 있고,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가에 의해 청백리 품성이 저하되는 평가도 일부 있기도 함. 그런데 현 시대의 역사가들과 일반인들은 맹사성을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청백리로 생각하는 데에는 이론이 없음. 또한 맹사성의 출생지가 한양인지 온양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맹사성의 품행을 본받자는 역사적 취지에서 본다면 출생지에 대한 논란은 맹사성상을 충남이 제정하는 데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맹사성상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4)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오석민박사, 한국학 중앙연구원 임선빈박사의 자문을 참고하였음.

2) 시기적 관점

- 첫째, 시기적 관점에서 표창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 당시 사회에서 권장될 품행이 표창을 통해 얼마나 증진될 것이며, 또한 표창으로 권장될 품행이 그 당시 사회성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맹사성상이 지니는 의미는 ‘청렴’이며, 청렴은 시기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풍속(美風)’으로 칭송되어 왔음. 과거 투명하지 못하고 민주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부정부패가 사회의 가장 커다란 악이었음. 그런데 현 시대에는 금융실명제로 ‘검은 돈’이 뿌리를 내릴 기반이 약화되었고, 특히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향후 공무원의 청렴은 당연한 현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민주화·지방분권과 더불어 시민의 참여가 확대·강화되어 과거와 같은 부정부패가 횡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인터넷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행정이 투명하게 되어 향후 공무원의 청렴은 더욱 강화될 것임. 이에 따라 청백리상 제정의 의의는 감소될 것임.
- 상의 제정의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결정됨.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을 때에는 이순신상, 유관순상의 제정의 의의가 커지는 것과 같이, 당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상의 제정의의가 결정됨. 참여·투명행정이 확대되었고 향후 (일명)“김영란법”이 정착되면 청렴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임.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따른 효과성, 제정의의를 보았을 때 공무원의 청렴을 권장하는 맹사성상의 시대적 제정의 의의는 그 이전보다 크지 않다고 할 것임.
- 둘째, 표창대상과 관련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측면임. 맹사성상의 대상은 공무원임. 과거 공무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을 의미하는 공복(公僕)이었음. 현재에도 여전히 공무원은 공복을 표방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 일상화된 현 시대에서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된 직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무원은 더 이상 “공복”보다는 선망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9급 공무원시험에도 1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인 현 시대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또 하나의 표창을 만든다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을 것임.

- 또한 청렴·봉사는 공무원의 의무임.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에 대해 시상을 한다는 것은 주민의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을 것임. 비록 공무원의 청렴이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미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표창의 의미는 제한적일 것임.

3) 행정적 관점

▶ 기존 공무원 훈·포상, 표창과의 중복으로 인한 권위 하락

- 맹사성상의 시상대상은 공무원임. 2014년을 기준으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총 44,143명이며 충남에서는 2,978명이 포상을 받았음. 포상의 종류는 훈·포상, 청백봉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청장표창, 시·도지사 표창, 시장·군수·구청장 표창 등이 있음. 이외에 국무총리상으로 모범공무원상이 있음. 이 가운데 청백봉사상은 2014년에 전국에서 10명이 수상하였으며, 충남에서는 한 명도 수상을 받지 못하였음.
- 충남에서 맹사성상을 제정한다면,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백봉사상과 중복의 의미가 있음.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훈·포상의 선정기준에는 이미 “청렴”, “봉사”, “근면”이라는 덕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훈·포상이 상호 독립적이지 못하고 중복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공무원의 청렴을 진작하기 위해 맹사성상을 제정한다는 것은 기존 중앙정부의 청백봉사상, 그리고 여타 표창과 중복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어 청렴 목적의 맹사성상 고유 목적은 그 의미가 미약하게 될 수 있음.

▶ 기존 청백리상과의 중복으로 인한 권위 하락⁵⁾

-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이미 공무원의 청렴·봉사 신장을 목적으로 청백리상을 시상하고 있음. 중앙정부는 청백봉사상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5) <참고자료 I> 참조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하정 청백리상”을, 기초자치단체로는 광명시, 용산구, 순천시가 청백리를 목적으로 한 상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충남에서는 아산시에서 온양문화원이 주최·주관하여 “아산청백리”와 “어린이 맹사성”을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던, 충남지역 혹은 아산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이미 청백리 목적의 시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백리 목적의 맹사성상을 제정하는 데에 요구되는 상의 권위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표 1] 시도별 포상 현황(2014)

시도별	2014								
	소계	훈·포상	청백봉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청장표창	시·도지사표창	시장·군수·구청장표창
소 계	44,143	2,709	10	684	1,496	6,910	1,548	15,433	15,353
서울특별시	6,243	194	1	64	69	276	93	3,285	2,261
부산광역시	1,806	101	1	25	57	321	62	288	951
대구광역시	1,655	194	1	64	87	333	83	582	311
인천광역시	1,995	17	-	28	69	315	63	766	737
광주광역시	1,243	82	-	10	38	143	81	520	369
대전광역시	1,029	111	-	14	49	240	51	276	288
울산광역시	807	36	1	14	46	193	39	315	163
세종특별자치시	308	8	-	2	8	121	24	145	-
경기도	6,753	273	-	88	241	936	195	2,347	2,673
강원도	2,766	194	1	60	77	462	86	875	1,011
충청북도	2,549	255	1	44	100	460	91	681	917
충청남도	2,978	105	-	46	107	535	116	935	1,134
전라북도	2,117	146	1	47	86	416	50	571	800
전라남도	3,410	261	1	40	116	628	121	1,164	1,079
경상북도	3,645	304	1	69	168	616	152	1,320	1,015
경상남도	4,240	343	-	56	148	756	172	1,181	1,584
제주특별자치도	599	85	1	13	30	159	69	182	60

자료 : kosis,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제정 관련 행정사항 ◀

03

- 관련 행정사항은 충남이 맹사성상을 제정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임

1) 시상 명칭

- 시상 명칭은 (가칭) 「맹사성 청백리상」을 제안함. 명칭을 제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상의 목적을 명칭에 표기할 필요가 있음. 맹사성의 목적이 청백리덕목의 증진에 있기에 “청백리상”이라고 하였음
- 둘째, 지역적 색채를 한정하는 표현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맹사성”이라는 명사 자체에 이미 충남이라는 지역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충남”이라는 표현을 상의 명칭에 담을 필요가 없음.

2) 시상 대상 지역

- 맹사성상은 대상 범위를 아시아권, 전국권, 충남권 등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아시아 지역 대상

- 지역을 아시아로 확대하여 아시아 청렴 관리상으로 제정할 수 있음. 이 경우 현실성을 고려해야 함.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1981년 국가공무원법에 관계규정을 신설하여 청백리상을 시상하였으나 1991년 중단하였음. 그 이후 2013년에 청백봉사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음. 중

앙정부의 청백리상이 중단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는데 광역자치단체가 아시아를 대상으로 맹사성상을 제정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됨.

- 아시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운영주체로 재단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서울올림픽대회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평화상의 경우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100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설립되었음. (가칭)「맹사성상 재단」의 사업 내용에 따라 자본금과 예산규모가 결정되겠지만,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재단을 설립할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적 협조가 요구됨.
- 또한 각 국가의 추천자를 받는 데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심사위원회도 국가적 명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시상금/행사비(시상자 체류비 포함) 등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임. 따라서 대상지역을 아시아로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무리일 것임.

▶ 전국 대상

-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경우임. 이 경우는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백봉사상 대상자의 추천을 받고 있는데, 굳이 충남도가 전국을 대상으로 다시 시상한다는 것은 중복의 의미가 있음.⁶⁾ 또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이미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전라북도는 자체적으로 청렴공무원을 시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이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맹사성상을 시상한다 해도 위의 광역지자체로부터 호응을 얻어 내기 쉽지 않음.⁷⁾

▶ 충남 지역 대상

- 충남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임. 충남에는 현재 청백리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임. 이 경우는 현재 맹사성 청백리상을 시상하고 있는 아산의 온양문화원과 지역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함. 아산시와의 공동 주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행정자치부,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5조제1항. <참고자료 2> 참조

7) <참고자료 3> 참조.

3) 운영주체

- 운영주체는 중앙정부, 충남도, 위원회, 재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최와 후원에 중앙정부의 참여가 요구됨.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시상하기 때문에 충남도는 어느 지역을 시상대상으로 하더라도 주최와 후원에 참여해야 함.
-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는 재단설립, 위원회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재단설립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필요하다면 비상설의 위원회 구성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4) 상금규모

- 상금규모는 대상지역과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운영주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제적 표창에 맞게 재단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비록 재단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국제적 표창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의 상금이 요구됨. 서울평화상은 인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20만 달러, 매년 평균 10만 달러(약 1억2천만원)를 지급하고 있음. 서울평화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제적 시상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5만 달러(약 6천만원)의 상금을 고려해야 할 것임. 기타 항공료·체제비, 행사비 등 부대경비를 포함할 경우 매년 1억원 이상의 순 경비를 예상할 수 있음.
- 국내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행자부의 운영규정과 타 지자체의 상금을 참조할 수 있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자부,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인천시의 경우, 모두 대상 5백만원, 본상 2백만원을 수여하고 있음. 기타 해외견학과 같은 특전을 부여하고 있음.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충남의 맹사성상 상금도 대상 1명 5백만원, 본상 2명 각 2백만원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임.

<행사성상 제정 방안 종합>

대안	대상 지역	주최/주관/후원	장점	단점	고려사항
①안	아시아	중앙정부·충남도/충남도 /(중앙정부, 충청남도)	-행정기관의 강한 추진력	-官 주도 행사라는 부정적 이미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국대상으로 청백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부담감 -청백리로서의 행사성 선생에 대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약한 인지도 -높은 상금, 체재비 등 많은 재정 부담(특히, 재단설립의 경우 재정부담 가중) -중앙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추진이 어려움
		충남도/위원회 /(중앙정부, 충청남도)	-民 주도의 이미지 제고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충남도/재단 /(중앙정부, 충청남도)	-민의 청백리 공무원을 시상한다는 이미지 제고	-민의 약한 추진력 -아시아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재단구성의 어려움 -가장 많은 예산 소요	
②안	전국	충남도/충남도 /(충남도)	-행정기관의 강한 추진력	-官 주도 행사라는 부정적 이미지	-중앙정부가 이미 전국 대상으로 청백봉사상을 시행중에 있음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청렴공무원에 대해 포상하고 있음
		충남도/위원회 /충남도	-民 주도의 이미지 제고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재단/재단 /충남도	-민간 주도의 순수성 담보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명망가로 재단을 설립해야 함 -재단 설립에 따른 많은 예산	

<행사성상 제정 방향 종합>

대안	대상 지역	주최/주관 /후원	장점	단점	고려사항
③안	충남	충남도/충남도 /충남도	-행정기관의 강한 추진력	-충남도 공무원 대상 청백리를 충남도청이 스스로 주최·주관 하는 “자화자찬”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충남도 대상 청백리상이 없고, 충남도청이 시행하기 때문에 충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함이 논리적으로 설 득력이 있음 -아산시의 현재 청백리상을 충남지역으로 확대할 경 우 대상지역 중복(아산시)을 막을 수 있으나, 충남도 별도로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행사성상을 제정할 경 우 현재 아산시 행사성청백리상과 일부 대상지역이 중복됨.
		충남도/위원회 /충남도	-민 주도의 이미지 제고		
		재단/재단 /충남도	-민간 주도의 순수성 담보	-민의 약한 추진력 -재단 설립에 따른 많은 예산	
		충남도·아산시/ 위원회 /충남도·아산시	-민간 주도 -아산시와 공동 주최로 재 정부담 -현재 아산시의 행사성상 의 대상지역 확대로 대상 지역 중복을 예방		

● 맹사성상의 제정은 합당성과 필요성, 현실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합당성 측면

- 고불 맹사성 선생의 청렴·봉사 덕목이 역사적으로 표창이 될 만큼 사실인가의 문제임. 역사는 시대의 정치권력 지도와 후세의 평가에 의해 윤색되어 평가되지만, 고불 맹사성선생의 청백리는 후세에 귀감이 된다는 점에서 맹사성상 제정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 현실성 측면

- 첫째, 공무원의 청렴을 장려하기 위해 현 시대에 상 제정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청렴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덕목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보완도 요구됨. 현재에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한 투명·참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김영란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임. 따라서 청렴상 제정의 의의는 과거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상의 중복문제임. 청렴상 선정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무원 표창과 중복될 수 있음. 물론 기존의 다른 상을 수상한 수상자는 청백리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표창의 양산으로 상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
- 셋째, 예산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임.

● 맹사성상 제정이 필요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고불 맹사성을 기리고 그의 품행을 계승할 필요는 있음.

- 상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현실적 타당성, 지속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행자부가 1981년부터 시행한 청백리상을 10년 만에 중단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광명시가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과 관련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역사적 필요성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⁸⁾
- 청백리상에 대한 역사적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상의 제정의의와 권위는 과거에 비해 떨어졌고 향후에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 본 과제에서는 맹사성상이 제정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대상지역의 범위, 운영주체, 시상규모 등을 대해 검토하였음. 시상 대상지역 기준으로는 행정·예산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충남도가 제정할 수 있는 맹사성상은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운영주체는 현재 맹사성 청백리상을 시행하고 있는 아산시/온양문화원과의 조율이 요구됨. 충남도 단독으로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시상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충남도 주최, 위원회 주관, 충남도 후원, 언론사 협조’의 형태가 바람직함. 시상규모는 행자부와 다른 지자체의 시상규모를 참고하여서 대상 1명(부상 500만원), 부상 2명(부상 200만원)을 제안하였음.

8) 광명시는 2013~2014년 청백리인 이원익선생을 널리 알린다는 목표 아래 광명시 공무원을 대상자를 접수하였으나 1명의 수상자도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상자를 전국 범위로 확대하여 2016년 추천을 받았으나 단 1명의 지원서를 받았다. 이에 광명시는 추천기한을 연장하여 겨우 3명의 후보자를 추가 접수하여 모두 청백리상을 시상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청백리와 1 동떨어진 채 상금만 덜렁 내건 이상한 시상식”이라고 비난하였다.(경기신문 2016년 7월 22일자 참조)

<참고자료 1> 청백리 관련 기존 시상제도

1. 중앙정부의 청백봉사상

중앙정부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국가공무원법에 청백리상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중앙정부는 퇴직자를 포함하여 현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결백하고 국민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쓴 인물에게 수상했으며 승진 등의 특전을 주었다.

현재에는 2013년 제정된 청백봉사상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굴하되, 대상은 매회 1명 이내, 본상은 매회 16명 이내에서 시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수상자 선발을 하고 있다. 추천은 시·군·구 자체 공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받고 있고, 지자체 이외 일반주민들에게서도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추천할 때 공직심사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증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수상자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렴·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면서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자, 창의적 노력으로 직무에 정려하며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한 자, 민원을 항상 친절·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고 있는 자, 주민의 불편사항을 헌신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데 공헌한 자 등이다. 공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상자 선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대상은 1인당 500만원 이하, 본상은 1인당 200만원 이하로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는 특별승진임용 등 인사상 특전과 국내·외 선진지 시찰(부부동반) 등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청백리상

- “ 서울시 하정(류관 ; 1346~1433) 청백리상 ”

서울시는 2009년부터 본청과 구청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하정 청백리상은 청렴결백하고 사회에 헌신·봉사함으로써 건전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정은 황희, 맹사성과 더불어 선초삼청(鮮初三淸)으로 불리는 류관(柳寬) 선생의 호이다.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되는 청백리상은 매년 대상(1명), 본상(2명)을 수상하고 있다. 수상자는 자체공직심의위원회의 심의화 감사관의 인터넷 공개검증 및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자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등의 부상과 특별승진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광명시 오리 이원의 청백리상 ”

광명시는 2013년~2014년 이원의 선생(1547~1634)의 청렴을 본받고자 광명시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백리상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2년동안 한 명의 수상자도 선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광명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상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2016년 추천을 받았으나 단 1명이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광명시는 추천기한을 연장하여 후보자 3명을 접수받았다. 시는 공개검증을 실시한 후 대상(상금 500만원) 1명과 본상(상금 200만원) 2명 등 모두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표창제도 자체의 존립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⁹⁾

광명시 청백리상은 오는 10월5일 광명시민의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 “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

용산구는 2011년부터 “청백 공무원상”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박 부서(동)장과 일반 시민의 추천을 받아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여 표창되고 있다.

9) 경기신문(2016.9.28일자)

추천 대상은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성, 건전한 공직사회 구성에 기여한 공무원, 민원업무를 공정·투명·친절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권리 보장에 노력한 공무원, 본인의 동의하에 재산권 형성 과정과 필요시 수입·지출내역을 통하여 근검·절약의 생활이 검증된 공무원, 구청 청렴도 향상에 지대한 공적이 있으며 공직자 신분에서 부적합한 행위를 하지 않은 공무원 등이다. 단, 추천일 현재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수상자 선정은 서류심사(증빙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공개검증, 공적 사실 확인을 거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심사위원회에는 퇴직 공직자, 지역 교육 공무원, 경찰, 지역주민(유관단체) 등이 참여한다. 시상은 종무식에 거행되며, 상장 및 상금 수여, 희망부서 우선 배치, 해외 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 “ 아산시의 온양문화원 ”

(1) 아산청백리

고불선생의 생가가 있는 아산에서는 온양문화원에서 매년 「아산청백리」과 「어린이 맹사성」을 선발하고 있다. 아산청백리는 현재 아산시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비상, 선생님을 대상으로 스승상, 경찰·소방대원·군인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킴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은 아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는 아산시에서 주관하여 충남지역 전체로 선발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2016년까지 17회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다.

(2) 어린이 맹사성

어린이 맹사성은 아산시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충·효·예·의·문 등 5개 부문별로 매년 1명씩 선발하고 있다. 각 학교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공적조서(40%), 포상경력(20%), 발표 및 면접(40%)으로 선발하고 있다.

기타 : “ 순천시 팔마청백리상(팔마봉사대상) ”

<참고자료 2> 행정자치부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정 2013. 3. 4. 안전행정부 훈령 제8호
개정 2014.11.25. 행정자치부 훈령 제1호
개정 2015. 7.31. 행정자치부 훈령 제2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렴·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2호에 의한 특정직공무원과 같은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시상의 명칭과 종류) ① 시상의 명칭은 '청백봉사상'이라고 칭한다.

② 이 상의 종류와 시상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 매회 1명 이내
2. 본상 : 매회 16명 이내

제4조(선발 및 시상) 청백봉사상 시상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발과 시상을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추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의 선발기준에 따라 청백봉사상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를 추천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청백봉사상 대상자를 추천 하고자 할 때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천서에 공적조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기준 및 방법) ① 수상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 요건의 어

는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청렴·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면서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자
2. 창의적 노력으로 직무에 정려하며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한 자
3. 민원을 항상 친절·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고 있는 자
4. 주민의 불편사항을 헌신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데 공헌한 자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는 공적 서류심사, 현지 확인, 공개검증(행정자치부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의 절차를 거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7조(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청백봉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은 행정자치부의 업무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제4조에 의한 공동시행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시행기관에서 3인을 추천받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참석자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청백봉사상 운영 및 서류심사, 현지확인, 공개검증 등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청백봉사상 수상자 선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공적심사위

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청백봉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7조와 제8조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상 및 부상) 시상은 연1회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상 : 1인당 500만원 이하

2. 본상 : 1인당 200만원 이하

제12조(인사특전) 본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규정에 의거 특별승진임용 등 인사상 특전과 국내·외 선진지 시찰(부부동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시상의 취소) ① 청백봉사상 수상자 중에서 해당 공적사실 등의 허위 또는 과장 된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청백봉사상 수상자 시상 취소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수상사실의 확인) 이 규정에 의한 수상자가 수상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수상사실을 신청인에 통보할 수 있다.

<참고자료 3> 청렴공무원 포상 관련 광역자치 단체 조례 현황

	자치법규명	선정 기준	포상내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은 1명, 본상은 2명으 로 함 2. 감사위원장은 실·국·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의 장으로 부터 자체공직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수상후보자 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 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 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되 3.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 렴·결백성과 헌신·봉사 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 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 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 여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 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 장과 상패, 시상금(대 상 5백만원, 본상 2백 만원) 등의 부상을 수 여하고, 감사위원장은 수상자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2. 단, 특별승진 추천대 상자는 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함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상은 1개 기관, 개인상 은 대상 1명, 본상 1명으로 함 2. 청렴대상의 단체상은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 하는 청렴도 평가결과 1위 인 군·구로 함 3. 청렴대상의 개인상 후보자 는 시 본청의 실·국·본 부,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 을 받아야 함 4. 시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개인상 후보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의 검 증을 한 후 인천광역시공직 자율리위원회의 심의 안건 으로 상정의되 하고, 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 패, 시상금(단체상 5 백만원, 개인상 대상 3백만원, 개인상 본상 2백만원)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음

	자치법규명	선정 기준	포상내용
		<p>회는 제2조에 따른 기준으로 심의하여 청렴대상 개인상 수상자를 선정함</p> <p>5. 심의는 청렴·결백성, 헌신·봉사성, 공·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도, 그 밖에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여도로 인정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함</p>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렴공무원 선발 및 포상 규칙	<p>1. 청렴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 시정관련단체의 추천 또는 언론보도등 광범위한 자료에 의하여 선발</p> <p>2. 추천된 자에 대하여는 매년 시의원, 민간인, 대학교수, 공무원등 10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발</p> <p>3. 청렴공무원은 매년 3인 이내로 선발</p>	<p>1. 청렴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중 승진서열 배수이내자에 대하여는 우선 승진임용 할 수 있음</p>
경기도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p>1. 청렴대상의 수상 부문은 매년 기관·단체·부서·개인 등 4개 부문 이내로 함</p> <p>2. 기관부문은 3개 시·군, 단체부문은 도 소속 공무원단체 3개소, 부서부문은 도 본청·직속기관의 부서 및 사업소 3개소, 개인부문은 공무원 4명을 선발</p> <p>3.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시장·군수, 도 감사관 또는 담당부서의 장, 도 본청 실·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함</p> <p>4.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가 심의함</p>	<p>1.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패, 시상금 및 선진지 시찰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고, 개인부문 수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p> <p>2. 시상금은 개인부문 50/100/150/200만원, 부서부문 100/150/250만원, 단체부문 50/100/150만원, 기관부문 100/150/ 250만원으로 함</p> <p>3. 제1항의 선진지 시찰대상자는 수상 기관·단체·부서에서 추천된 공무원 가족과 개인수상자 가족</p>

	자치법규명	선정 기준	포상내용
			으로 함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1.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전라북도 실·국·단장·본부 장 및 직속기관장 2. 청렴도 세부평가 기준은 국 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항목으로 운영 3. 단체부문은 5개 도 소속부 서, 기관부문은 5개 시군, 개인부문은 공무원 10명을 선발	1. 예산 범위 내의 포상 금 지급 2. 개인부문은 도지사 표 창 별도수여